



## 푸른 꿈이 익어가는 곳! 그린토피아펜션농원

그린토피아펜션농원 정 경 섭 대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최고지도자협의회 회장, 양수리 대표)

### (1) 귀농 — 새로운 인생의 출발

귀농의 목적 : 건강한 삶, 삶의 질 향상,  
보람된 일, 안정된 소득

양수리...

LG정유를 97년 말 퇴직한 후,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고 농가주택과 딸린 밭을 구입하여 98년 10월 말에 전원주택을 완공하고 양수리 마을로 아주 이주하였다.

이사를 하고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농장을 가꾸기 시작했다. 오백여 그루의 배나무 묘목과 복숭아·대추·감·포도 등 어지간한 유실수는 여남은 그루씩 심었다. 지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푸성귀도 종류별로 골고

루 심었다. 그렇게 삼 년쯤 지나고 나니 농장이 제법 모양새를 갖추었다. 이른 새벽 산책삼아 뒷동산에 올라 농장의 전경을 바라볼 때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밀려왔다. 양수리의 이름답고 깨끗하고 수려한 경관 속에서 근심걱정과 스트레스 없이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연과 벗 삼아 땀 흘려 일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겐 한없이 기쁘고 편안하며 즐겁다.

직장도 직업도 전공도 집도 가족도 전부 바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도 많았다. 하지만 나에게겐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희망과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기에 현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

### (2) 준비과정 : 교육,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목적 : 방향설정, 인간관계형성

많은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동경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사리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부부가 뜻이 같아야 한다. 그리고 농촌생활, 즉 흙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곳 이장이 얼마 전에 나에게 물었다. 농사일이 재미가 있느냐고. 솔직히 나는 작년과 올해 밭을 가꾸면서 열심히 일했다—왜냐하



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귀농을 위해서는 농업, 농촌생활에 대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귀농 전에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귀농 창업대학과 하기농민대학을 수료하였고, 귀농 후에는 서울대 농생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그린투어 최고지도자과정, 벤처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다. 전국의 선진과수원과 과수연구소들을 경희대 김용구 교수와 함께 순회방문 견학하였고, 인터넷관련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교육도 20여 차례 받았다. 또한 전국의 우수 팜스테이, 관광농원, 수목원,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순회방문 견학하여 벤치마킹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과정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아는 사람이 없는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농업, 농촌생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훗날 나에게 많은 도움과 힘이 되어준 분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 (3) 그린투어, 도농녹색교류로 방향설정

양수리 마을사람들은 시골이라지만 서울에서 불과 차로 30분 거리로 가깝고,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시골도 도시도 아닌 어느 면에서는 어울려 살기가 몹시 까다로운 점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베풀며 살자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무척 배타적이던 마을사람들이 이제는 하나 둘 우리와 친해지고 거의 매일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잘 어울려 살게 되었다. 우리에게 대한 마을사람들의 관심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때로는 사생활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편 생각하면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이웃간의 정을 맛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이 사람 사는 재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겨울이나 한가할 때면 마을회관에 모여 마을사람들끼리 음식도 해먹고 밤늦도록 함께 놀기도 한다.

요즘 나는 과수원일 말고도 동네일로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다. 삼사년 전부터 우리 마을이 좀 더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해 무언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그린투어(녹색관광 혹은 녹색교류)를 우리 마을에서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을분들을 설득하여 작년부터 소규모(7농가) 시작, 올해는 마을 전체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그린투어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 13일 배꽃축제도 그린투어의 일환으로 내가 주동이 되어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축제행사였다.

사실 양수리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남·북한강, 팔당에 접해 있어 경관이 아름다워 그린투어를 하기에는 최적지이면서도 주민들이 그런 방향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주5일근무제가 시작되면 앞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을 많이 찾게 될 것이며 그때를 대비하여 볼거리, 놀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시골의 인심과 정을 담아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다행히 동네분들이 호응해주고 노력한 보람이 있어 양수리 마을이 농림부의 그린투어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른 곳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다.

나는 마을 주민들을 설득했다. 관광사업이 무슨 농사냐며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주민들도 자기 일처럼 마을일



에 발 벗고 나서는 나를 차츰 믿고 따르게 되었다. 도시인이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주민들은 지난해 농림부로부터 2억원의 지원금도 유치했다. 농협으로부터는 팜스테이, 주말농장으로 양평군으로부터는 생태건강마을, 친환경선도마을로 선정되는데 마을리더로서 기여하게 되었고 현재는 과수원과 주말농장, 펜션민박, 농촌체험을 운영하며 양수리 마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 (4) 친환경농법을 과학으로 접목

안전하고 맛있으며 건강에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우리 농원은 친환경선도농가, 환경농업시범농가, 키토산과수재배시범농가, 저농약인증농가란 타이틀에 맞게 발효퇴비를 사용하며 제초제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배나무는 밀식재배방식으로 V자형 덕시설과 점적관수시설을 완비하고, 성 페르몬으로 해충을 제거하여 저온저장 및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최상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양평군 키토산배 작목반의 일원으로 양평의 친환경농업 이미지와 키토산농법과 저농약인증을 브랜드화하여 자체 제작한 포장박스를 사용, 대부분 직판하고 있다. 그리고 배나무의 일부를 봄부터 주말과수원으로 분양함으로써 판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농사에

만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

#### (5) 사이버영농으로 농외소득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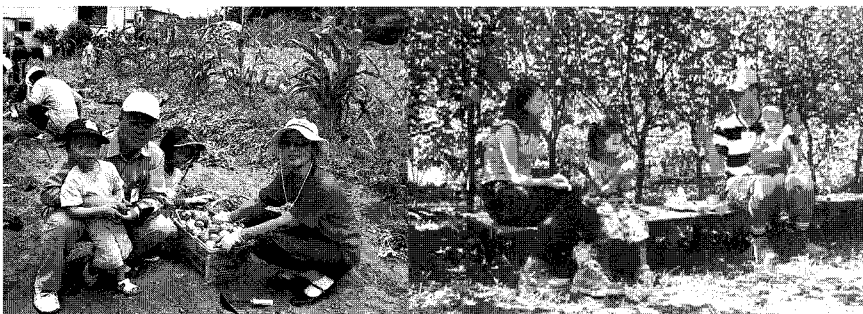
과수원의 생산품인 과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과수나무를 주말과수원으로 분양하면 과일이 생산되는 9~10월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되는 순간에(봄부터 가을까지) 소득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보면서 많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과수분양, 주말농장, 텃밭분양 및 농촌체험을 사이트에 소개하였고 살고 있던 집을 펜션으로 개방하여 펜션민박 위주로 홈페이지를 개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펜션을 홍보하기 위해 펜션·민박 전문사이트와 여행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전문사이트, 관련공공기관에 등록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드리고 있다.

펜션은 100% 예약제, 선불완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손님들에게는 텃밭에서 재배된 유기농채소를 무료로 따 드실 수 있도록 하였고 모닥불에 고구마, 감자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판촉활동을 하였다.

과수분양과 농촌체험, 농산물 판매를 위해 각종 이벤트(배꽃축제, 나물캐기, 앵무따기, 감자캐기, 배·포도·밤따기, 고구마캐기, 썰매타기 등)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와 내방객들의 방명록, 고객리스트를 활용하여 행사, 이벤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연락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3년 농림부주관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에서 홍보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6) 운영의 기본

그린토피아와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기본이 되는 원칙을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1. 있는 자원의 최대한 활용, 투자 최소화
2.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부터 시행-꽃밭가꾸기, 주변환경미화
3. 수익성 있는 사업부터 시작-민박, 식사, 체험, 농산물 판매
4. 주민교육, 의식개혁 및 주민화합
5. 서비스마인드와 경영마인드 제고-홍보, 마케팅, 고객관리
6. 마을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린다-마을테마선정
7. 자체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것
8. 지도지역량이 제일 중요-지도자그룹 형성

## (7) 도농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

영농규모를 텃산 임야까지 확대하여 배 이외의 과일, 고구마 등을 심어 방문하시는 분들께 직접 수확하는 체험을 하게 하고 있으며 야생화와 허브, 시골 꽃들을 밭에 심어 정원처럼 꾸미고 마을 앞 용늪의 연꽃단지를 생태공원화하여 도시민들이 찾으실 때 휴식을 취하고 체험과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농촌체험은 프로그램을 더 짜임새 있게 개발하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농촌관광체험학습 전문기관과 제휴한 뒤 인터넷 홍보와 전자상거래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펜션·민박 분야는 동영상을 새로 제작하는 한편,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음사이트의 '녹색관광' 카페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린투어회원과 도시민과의 가교역할도 강화할 것이다.

### 최고지도자 동문께 드리는 말씀

그동안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그린투어 최고지도자과정이 3기까지 배출되었으나 과정 이수 회원 상호간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0일 3기 졸업식 전날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임무를 떠맡을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여하튼 제가 선출된 이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지도자과정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명실 공히 우리나라 그린투어를 이끌어갈 최고의 리더들의 모임이 되며 우리나라 그린투어 발전에 기여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이 메 일 : chung990@chol.net

홈페이지 : <http://www.green-topia.com>

전 화 : 031-774-4929, 019-470-0122